

결 정

2018-2-3 독자불만처리

불만제기인 ○ ○ ○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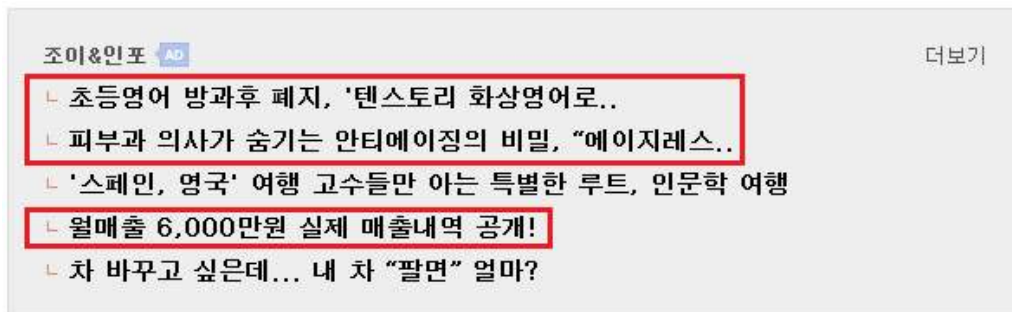
연합뉴스 2018년 1월 26일자 「초등영어 방과후 폐지, '텐스토리 화상영어로..」, 「피부과 의사가 숨기는 안티에이징의 비밀, “에이지레스..」, 「월매출 6,000만원 실제 매출내역 공개!」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를 보다가 한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화면은 어떻게 보아도 네이버 화면과 동일한 편집으로 되어 있어서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왜 광고 페이지에 '뉴스'라고 뜨는 겁니까? 이러한 페이지 구성 때문에 광고를 기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2.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 26. 15:32 캡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6/0200000000AKR20180126038900007.HTM>
[L?from=search](#)>

▷초등영어 방과후 폐지, '텐스토리 화상영어로.. (광고 사이트 화면)

English 中文 日本語

뉴스 스포츠 연예 | 오늘의인기 | 날씨

뉴스를 속보 정치 경제 생활 사회 문화 인기뉴스 연예 포토

생활

건강정보
미용정보
식품/의료
일반

동화스토리, 미국 출판협회 수상작 원서 콘텐츠로 엄마들 사이에 화제!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물론 독서를 통한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
- 미국 도서 협회(ALA)에서 선정한 수준 높은 도서 콘텐츠로 실력UP

기사원문 1515

내 아이 영어회화, 미국 출판협회 수상작들로 재미와 실력까지!

9세 자녀를 둔 K씨는 영어교육문제에 고민이 산더미다. 영어노래 노출, 학원, 과외, 학습지까지 시켜봤지만 언제나 '영어회화'는 '무리'였기 때문. 글로벌 시대의 인재상은 말하고 사고할 줄 알아야 한다던데...

K씨처럼 영어 울렁증도, 영어 스트레스도 내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은 엄마들 사이에서 23년 전통의 영어원서 학습 '텐스토리'가 화제가 되고있다. 미국학생이 배우는 바로 그 교과서, 해외 출판협회 수상작인 바로 그 원서를 이용한 신 개념 독서학습 프로그램으로 미국식 사고와 원어민식 회화를 동시에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동화스토리 텐스토리 소개

동화로 더 쉽고, 재미있게!

우리 아이 영어학습, 텐스토리와 함께
무료체험이벤트
1,000여권의 캠퍼드사 미국 원서로 아이의 생각을 키워주는 온라인 학습 텐스토리!
무료상당 받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교육	화제	정보	생활	라이프
1	말 못하는 자녀 영어 교육, 걱정된다면?...			
2	현 번을 말하면 말문이 트인다?미국원...			
3	일본 초등학생이 쓴 내 아이, 원어민착...			
4	[화제] 특별한 자녀 영어학습 '텐스토리'			
5	우리 아이 영어교육으로 고민된다면, 포...			

실시간 인기뉴스

- 초등영어 방과후 폐지, 텐스토리 학습영어 화제
- "2월" 일출한트 가려운 영어?
- 미국프리 "주름,기미,폴리"블라운 개선
- 커피칼럼이 차고 이 칼럼이 뜬가?
- 박필수가 선정한 '칼럼', 총매출 8,000만원?

오늘의 인기영상

<<http://news.sunnyworks.co.kr/tenmamber/?aid=127112>>

▷피부와 의사가 숨기는 안티에이징의 비밀, “에이지레스.. (광고 사이트 화면)

뉴스 스포츠 연예 오늘의인기 날씨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생활 사회 문화 인기뉴스 연예 포토

생활

건강정보
미용정보
식품/의료
달반

**‘피부와 관리’ 이제 집에서 받는다?
여배우 화장품 MS2-PLUS 화제**

- 콜로 종게어로 인해 어디서나 피부과 용광 피부 유지 가능해
- 2018년 ‘바르는 보톡스’ 아세탈락사필티아드로 더욱 영광된 피부

기사원문 > 1515 >

피부 고민, 안티에이징의 비밀
집에서 간단히 바르고 문지르지만 하면 동안얼굴 완성

50대 초반 주부 A씨는 얼마 전 우연히 확대경으로 얼굴을 보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사이, 얼은 기미가 백곡히 올라와 있었던 것.

최근 부쩍 얼굴빛이 어둡고 칙칙해 보인다는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기미와 곱티 때문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그런 그녀의 고민을 들은 지인은, 요즘 여배우 사이에서 인기라는 MS2를 추천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교육 취재 정보 생활 라이프

1. [취재] 프로상 일모양은 동안여우 비결은?
2. 하루 5분, 눈물보톡스 간편한 피부 관리법?
3. 시술없이 주름지우는 신개념 화장을 바...
4. [인기] 남으로 양쪽 눈만 주름진 ‘피부...
5. 희칙하고 어두운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살만 안뉴스

- LPL다량 ‘노도 킬링’ 주 콜라겐 기미 제거제
- 귀여움 대신 부끄러움의 아름다움
- 피부고민 ‘주름기미, 잡기’ ‘늘려주는 개선
- ‘노도’ 일출물로 귀여운 얼굴이?
- ‘와바’하고 살면... 내 눈 ‘덜덜’ 할까?

‘동안’ 인조하고, 확실한 성분으로
사라져간 주름 기능성 성분과 자연 채취 천연 성분으로
LONAS 2015 대상을 받은 MS-4 PLUS

C TIME 뷰티 사관 학교 방송 중
민중동안얼굴 로소개된 MS-2

<http://news.sunnyworks.co.kr/ms2/default_1712.asp?aid=124332>

▷월매출 6,000만원 실제 매출내역 공개! (광고 사이트 화면)

뉴스 스포츠 연예 오늘의인기 날씨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생활 사회 문화 인기뉴스 연예 포토

경제

주식정보
부동산
금융/투자
창업정보

**[경제] 창업경연선수로 선정된 PC방 프랜차이즈 업체 1위는?
PC방 브랜드 '아이센스리그PC방'이 뜨는 이유! 실제매출 확인하니..**

- 연매출 7억원대 창업! 실제 지점별 매출 내역 공개!
- 타사비교거부, 특보적인 가맹 매출 보장하는 체계적 시스템

기사원문 > 1515 >

창업의 뒤편 : 박명수가 말한다, '트렌드를 잡아야'

고용불안의 시대다. 이제 직장을 옮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문제는 유행따라 개업하고 개업지나 폐업하는 한철장사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성공의 키워드는 유행이 아닌 트렌드다. 계속해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진 가운데, 자영업자의 이름으로도 친숙한 박명수가 선택한 창업이 화제가 되고있다.

2억 박명수 아이센스리그PC방 탐방기

어안이 병병

가장 많이 본 뉴스

교육 취재 정보 생활 라이프

1. [취재] 연 매출 7억! 흥행한 창업 아이템...
2. 실리창업 특징은 들려주는 창업 '박명'
3. 고노 성공 역사, 흥행 화는 이 창업 아이템...
4.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실제매출 화제...
5. 연매출 7억, 대기업만큼 뛰어넘는 PO...

살만 안뉴스

- 피부고민 ‘주름기미, 잡기’ ‘늘려주는 개선
- 초콜릿이 피부에 좋지, 탄소산의 화상없이 화제
- 와바’하고 살면... 내 눈 ‘덜덜’ 할까?
- ‘노도’ 킬링으로, 눈매에 이쁜 ‘동글이’ 할?
- 박명수가 선택한 창업, 매출 6,000만?

PC방 월매출 6,000만원 수익률 49% 못 믿겠다면?

<http://news.sunnyworks.co.kr/isens/default_1712.asp?aid=126418>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자사 사이트 하단에 「조이&인포」라는 광고 박스를 만들고 「초등 영어 방과후 폐지, ‘텐스토리 화상영어로..」, 「피부과 의사가 숨기는 안티에이징의 비밀, “에이지레스..」, 「월매출 6,000만원 실제 매출내역 공개!」 제하의 광고를 실었다.

그런데 각각의 광고를 클릭해 들어가 보면, 기사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고 화면까지 기존의 온라인 신문이나 네이버 뉴스의 편집 체계와 거의 동일한 형태이다. 또 화면상의 다른 카테고리나 기사 제목, 그 무엇을 클릭하더라도 해당 광고 페이지에 머물러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기사 형태의 광고와 혼합한 적시 광고의 화면 편집 체계는 독자로 하여금 광고를 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송 호	정송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